

한전, '에너지 캐시백' 가입자 121만 세대 돌파

166억 경감...사용량 절감시 1kWh당 최대 100원 취약계층 에너지 고효율기기 교체 지원사업도

한국전력은 에너지 비용 부담이 큰 시기에 국민의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하고 에너지 절약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시행 중인 '주택용 에너지 캐시백' 가입자가 121만 세대를 돌파했다고 16일 밝혔다. 주택용 에너지캐시백 제도는 전력 사용

을 줄이면 다음달 전기요금에 할인 적용되는 프로그램으로, 지금까지 절감률을 달성한 고객들은 총 166억원의 전기요금 경감 혜택을 받았다.

해당 제도는 직전 2개년 동월 평균 대비 절감률이 3% 이상인 경우, 30%를 한

도로 절감률 구간에 따라 1kWh당 최대 100원의 캐시백을 다음달 전기요금에서 차감해 지급하는 방식이다.

온라인 신청은 한전ON에서 가능하며, 포털사이트에서 '한전 에너지캐시백'을 검색하거나 QR코드를 스캔해 신청할 수 있다. 방문 신청 시에는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가까운 한전 지사에서 신청하면 된다. 다만 통신중계기, 소형점포, 창고 등 주거용으로 사용되지 않는 곳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 함께 노인·아동·장애인 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에너지 고효율 에어컨·냉난방기·히트펌프 보일러 등 총 47기 품목을 설치할 경우 구매 비용의 50% (최대 1600만원)를 지원하는 사업도 운영 중이다.

저효율 등급의 제품을 사용하던 시설이 에너지효율 1등급 제품으로 바뀌면 연간 25만원 상당의 전기요금 절감이 예상되는 데, 지난 한 해에만 1069개 시설에 2481대 설치를 지원해 연간 1.6GWh의 에너지 절감 효과를 얻었다.

지원 대상 품목 및 신청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한전ON 지역별 공고문에 게시돼 있다. 해당 주소지 관할 한전 지사로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한전 관계자는 "취약계층의 에너지 복지 향상을 위해 고효율 제품 보급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국민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전기사용을 실천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승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

ECONOMY

2025년 3월 17일 월요일

목포 청년창업자 금융지원 사업 전남신보, 5억원 규모 특별보증

목포시(시장 박종률)와 전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강근, 이하 전남신보)은 목포 청년창업자 금융지원(종자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17일부터 청년창업자 지원 특별보증을 공급한다고 16일 밝혔다.

창업 초기 자금조달 능력이 부족한 청년창업자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마련된 이번 사업은 2019년부터 매년 시행되고 있다. 전남신보는 현재까지 총 600여명의 청년사업자에게 134억원을 지원해 사업 안정에 기여했으며 올해는 협약에 따라 5억원 규모의 특별보증을 공급할 예정이다.

특별보증은 만 45세 이하인 청년 중 성장잠재력이 높고 신용상태가 양호하며 사업장이 목포시에 소재한 청년창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업체당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하며, 보증지원과 더불어 청년 사업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과 컨설팅 서비스를 무료로 지원한다.

이강근 이사장은 "이번 사업으로 청년들의 활력이 가득한 목포시가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목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현아 기자 aura@gwangnam.co.kr

한전KPS-대우건설, 소형모듈원전 시장 공략 설계·시공부터 유지정비 전주기 협력체계 구축

한전KPS와 대우건설이 손을 맞잡고 차세대 원자력 기술인 소형모듈원전(SMR) 시장 공략에 본격 나선다.

한전KPS는 최근 대우건설과 SMR 분야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설계·시공부터 유지정비(O&M)까지 전 주기에 걸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협력은 국내 SMR 기술 개발과 투자, 그리고 향후 글로벌 시장 진출까지 염두에 둔 전략적 파트너십이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한전KPS는 국내 원자력 발전소 유지정비 총괄해운 전문기관으로 설비 진단·예방정비·운영지원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SMR의 상용화 이후에도 안정적인 운영과 정비 체계가 필수인 만큼, 한전KPS는 SMR 전용 정비 표준화 및 스마트 정비 기술 확보를 통해 핵심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대우건설은 대형원전 및 연구용 원자로 등 국내외 다양한 원자력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축적된 설계/구매/시공(EPC) 역량을 SMR 분야로 확대하고자 추진 중



이날 행사에는 정영남 에스제이기술 대표이사 등이 참석해 가운데 고품질 수산화알루미늄의 첫 수출식을 개최했다. 최기남 기자 bluesky@

이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대우건설과 한전KPS는 SMR 설계, 건설, 운영에 관련된 국내·외 제작, 운영, 정비분야 등에 대한 기술 파트너로 협력하면서 SMR 사업개발 및 추진에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양사는 이번 협력을 통해 △국내 SMR 사업 공동 참여 △SMR 유지정비 체계 개발 △해외 SMR 프로젝트 공동 진출 △원전 해체-신규 SMR 전환 모델 개발 등 다방면에서 협력 범위를 넓혀갈 예정이다. 이승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

에스제이기술(주), 고품질 수산화알루미늄 첫 수출길

업사이클링...1t 유럽형 "글로벌 시장 확장 박차"

산업폐기물 재활용 전문기업 에스제이기술(대표이사 정영남)의 고품질 수산화알루미늄이 첫 수출길에 올랐다.

에스제이기술은 최근 무안군 삼향읍에 위치한 제2공장에서 알루미늄 드로스(폐기물)의 업사이클링을 거쳐 탄생한 고품질 수산화알루미늄의 첫 수출식을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정영남 에스제이기술 대표이사를 비롯해 신현구 회장, 유민희 전무, 배상철 연구소장, 오교은 이사 등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했다.

지난 2019년 설립된 에스제이기술은 산업폐기물 및 부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하고 유효성분을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제조할 수 있는 다양한 기술을 확보하고



에스제이기술은 최근 무안군 삼향읍에 위치한 제2공장에서 정영남 에스제이기술 대표이사 등이 참석해 가운데 고품질 수산화알루미늄의 첫 수출식을 개최했다. 최기남 기자 bluesky@

있다. 특히 알루미늄 금속 제조과정 부산물에 포함돼 있는 알루미늄 성분을 고부가가치 물질인 수산화알루미늄으로 회수할 수 있는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 사업화에 성공했다.

이날 수출된 물량은 최종제품 성능평가를 거친 1t 분량으로, 이는 유럽으로 수출됐다.

정영남 에스제이기술 대표이사는 "국

내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알루미늄 폐기물은 각종 산업에 부담으로 가중되고 있어 안전적으로 이를 재활용 할 수 있는 기술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며 "관련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중장기적으로 일본을 포함한 동남아 지역과 미국, 유럽 등 글로벌 시장 확장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송대용 기자 sdw0918@gwangnam.co.kr

내년까지 지역에 2만8000호 공동주택 공급

광주 1만5962호·전남 1만2515호... 전국 46만호

내년까지 광주·전남지역에 2만8000여 호의 공동주택이 공급될 전망이다.

한국부동산원과 부동산114는 최근 공동으로 생산한 '공동주택 입주예정물량 정보'를 발표했다.

이는 양사가 협업해 생산한 것으로 지난해 12월을 기준시점으로 올해 1월부터 내년 12월까지 향후 2년간의 공동주택 입주예정물량 전망치다.

세부적으로 보면 올해 광주의 입주예정물량은 4725호, 내년에는 1만1237호로 모두 1만5962호가 예정 돼 있다.

전남은 올해 7199호, 내년에는 5316호로 모두 1만2515호다.

해당 기간, 전국적으로는 46만5133호의 공동주택이 입주예정물량으로 집계됐다. 서울은 올해와 내년 각 4만6710호, 2만4462호 공급을 앞두고 2년간 7만1172호가 공급될 것으로 보인다.

2년간 물량이 가장 많이 나오는 지역은 13만3184호인 경기도. 경기도는 올해 7만1472호, 내년에는 6만1712호가 예정 돼 있다. 지방에서는 경남의 물량이 2만8641호(올해 2만2224호, 내년 6417호)로 가장 많다.

이번에 발표된 정보는 정확성 제고를 위해 전국 지자체 검증, 정비사업 실 적용 기준 집계, 공사 중단, 일정 변경 등 변동 사항을 반영했다.

물량 산정 특성상 기준시점 이후 발생하는 변경 정보는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

입주예정물량의 세부정보 등은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 R-ONE(www.reb.or.kr/r-one), 한국부동산원 청약홈(www.applyhome.co.kr), 공대데이터포털(www.data.go.kr)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송대용 기자 sdw0918@



농협중앙회는 최근 현대호텔 바이 라한 목포에서 호남권역(광주·전남·전북) 지역본부 현장경영을 개최했다.

강호동 농협중앙회장, 호남권역 현장경영

농협 전남본부, '1농협 1대표사업' 추진계획 발표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목포에서 호남권역 지역본부 현장경영을 개최하고 갈수록 어려워지는 농·축협의 위기 극복을 다짐했다.

16일 농협 전남본부에 따르면 최근 현대호텔 바이 라한 목포에서 호남권역(광주·전남·전북) 지역본부 현장경영을 개최했다.

이번 현장경영은 농협중앙회가 지역 현장과 소통해 계통간 협력·상생을 강화하고, 농업·농촌이 현장에서 겪고 있

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경영에는 강호동 농협중앙회장, 중앙본부 임원·집행간부, 호남권역 조합장 220여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지역본부 업무보고, 중앙회장 특강, 조합장과의 대화 순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농협 전남본부는 역점사업인 '1농협 1대표사업' 추진계획을 내놓았다. 이 사업은 농업인구 감소, 기후변화, 농촌 기반 약화 등 농업·농촌이 직면한 어려움 극복을 위해 농축협

의 특성에 맞는 전략 사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전남본부는 각 시·군·자치단체와 협력해 맞춤형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대표 사업 추진 과정과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농협중앙회는 이번 현장경영에서 제시된 의견을 향후 중앙회 사업과 경영에 반영할 방침이다.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이번 현장경영을 계기로 전국의 농축협이 겪는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농축협과 함께 희망농업·행복농촌을 구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승홍 기자 photo25@

농협 전남본부, 산지유통관리자협 정기총회

전문인력 육성 강화·협의회 발전방향 등 논의

농협 전남본부는 최근 본부 대강당에서 '2025 전남농협 산지유통관리자협의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정기총회는 △2024년 사업결산 및 2025년 사업추진계획 △경제사업 우수적인 표창 △산지유통관리자 전문화 방

안 △협의회 지속 발전방향 등 다양한 논의 심도있게 진행했다.

또한 올해 △전남농산물 연합마케팅사업 4800억원 달성 △1농축협 1미래사업 추진 △쌀 소비촉진 범국민 동참운동 등 농업·농촌을 위해 적극 앞장설 것을 결의

했다.

이광일 농협 전남본부장은 "산지유통 활성화를 위해 힘 써 주시는 협의회 회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며 "협의회 발전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농협 산지유통관리자협의회는 2017년 창립해 전남 도내 농협, 조공법인에 소속돼 농산물 생산, 유통, 판매를 이끌고 있는 경제사업의 핵심인력 75명의 회원으로 구성돼 있다.

이승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

로또 2 13 15 16 33 43

로또 1등 15명...당첨금 각 19억4000만원

제1163회 로또복권 추첨에서 '2, 13, 15, 16, 33, 43'이 1등 당첨번호로 뽑혔다.

2등 보너스 번호는 '4'이다.

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15명으로 19억3689만원씩 받는다.

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가 일치한 2등은 75명으로 각 6456만원씩을, 당첨번호 5개를 맞힌 3등은 3386명으로 143만원씩을 받는다.

당첨번호 4개를 맞힌 4등(고정 당첨금 5만원)은 16만8204명, 당첨번호 3개가 일치한 5등(고정 당첨금 5000원)은 279만5027명이다.

연합뉴스